

한반도 '전술핵 배치·핵잠수함 구비' 거론

한미 국방장관 회담... "野·언론서 얘기 나온 정도 언급"

미국 전략자산 상시·순환 배치 논의 필요성에 동의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핵잠수함 잠수함 구비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에서 한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 언급과 관련해 "그런 얘기도 오가는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우리 측의 정책이 이렇다고만 했다"고 말

했다. 이에 따라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를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송 장관은 이날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도 전술핵 배치를 놓고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가 논의된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 억제력 제고의 필요성 등을 얘기하면서 야당과 언론 등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정도를 언급했을 뿐"이라며 "미국 측도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한반도의 안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외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또 회담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잠수함 구비 문제도 언급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SLBM 대응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필요성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두 장관은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및 상시 배치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양국인 전략자산 전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매티스 장관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31일 미군 전략폭격기 B-1을 동원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에 나섰다. 한미일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포기하지 않는 데다 지난 29일에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일은 이날 오후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와 미 공군의 B-1을 일본 서남부 규슈(九州) 서쪽에서 한반도 방향의 공해상으로 비행하는 훈련을 했다. 북한은 올해 13회에 걸쳐 탄도미사일 또는 단거리 발사체를 18발 발사했으며, 현 정부 출범 후 탄도미사일은 7차례에 달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정은 집권 후에는 탄도미사일과 발사체 등 59발을 쏘았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세훈 4년 선고... '국정원 댓글' 폭로 권은희 의원의 소회

대선 개입 정치권력 지시·공모 밝혀야 가장 힘들때 광주시민들이 품어줘 감사

법원이 지난 30일 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법에서 금지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자, 대선개입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경찰 재직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맡았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2013년 4월에는 경찰 수뇌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폭로하는 등 사건의 한 중심에 있었다. 광주일보의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다음날인 31일 권 수석부대표를 만나 소회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 전 원장이 구속됐다.

▲이제야 답답함

이 조금 풀렸다. 이 사건은 알려진 것보다 감춰진 사실이 더 많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전체 활동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대선을 개입하도록 한 정치권력의 지시와 공모,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실재한 수사방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모해유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당시 김 전 청장 등 지휘부로부터 실제 수사관련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언한 것이다. 그분을 벌받게 하려고 거짓 증언을 한 게 아니라 진실 그대로, 실제 그대로 밝힌 것이어서 걱정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 초기 경찰 수뇌부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은폐를 폭로했다. 역린을 건드린 셈인데.

▲수사과정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늘 어떠한 외부적 고려 없이 사건만 보고 실체만 보고 수사하자고 강조했다.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울산 다음으로 낮았다.

시가 일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방채상환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조기상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채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614억원으로 전년보다 61억 원 감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예산·재정정보·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로 이후의 삶은.

▲막상 하고나니까 일상의 평온이 깨지는 것을 실감했다. 점점 힘들어져 갔는데, 가장 힘들 때 광주시민들께서 품어주셨다. 당신을 지지한다. 응원한다. 그런 불법은 우리도 용서하지 않

는다는 시민들의 응원과 힘이 느껴졌다. 지금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잊지 못할 거 같다.

-그때 느꼈던 가장 심한 압박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을 보고 간접적이지만 공모를 느꼈다. 채 총장에 대해서 계속 미안함 있었다. 최근 법률사무소 개소식에서 처음 만났다.

정말 밝은 분이더라. 우리 사회를 밝게 하기 위해선, 불법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 않게 우리 사회를 밝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채 총장 같은 중요한 리더를 희생시켰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부채의식 있었다.

-끝으로 최근 원내수석부대표로 선임됐는데, 각오는.

▲당이 시민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당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안철수 당 대표에게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5·18특별법 처리에도 당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산하기관 경영실적 크게 향상

문화재단 5계단 상승

광주시가 12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여성재단이 S등급(탁월)을, 광주문화재단 등 5개 기관이 A등급(우수)을 받았다. 디자인센터, 신용보증재단, 국제기후환경센터, 과학기술진흥원 등이 A등급, 그린카진흥원, 복지재단, 경제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영어방송, 정보문화산업진흥원 6개 기관이 B등급(보통)으로, 전반적인 경영관리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29일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여성재단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총점 5.44점 상승하며 우

수한 성적으로 1위를 지켰으며, 문화재단은 순위가 5계단이나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문화재단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의 체계적 수립, 경영평가와 업무연속성 결과 환류의 적절성, 조직구조 합리적 개편 등으로 리더십·전략 및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전 부문에서 고른 득점을 획득·전년대비 총점 6.4점이 증가해 상당한 개선 노력과 성과가 인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결과를 출연기관에 통보하고 평가위원들의 경영개선 의견은 해당 기관에 개선 권고해 정책 환류와 우수시책 공유·확산 등으로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민 1인당 지방채무 65만원

전년보다 1만3000원 줄어

지난해 광주시의 살림살이와 세출 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채무잔액과 1인당 지방채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를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31일 게재했다.

시의 2016년도 살림규모는 전년보다 1.5%(730억원) 늘어난 4조8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채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조8919억원이다.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을 더한 이전재원은 1조8444억원이다.

특히 사회복지비 등 세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세출 규모가 전년보다 1%(429억

원) 가장 증가했는데도 채무잔액은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채무잔액은 95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4억원 줄었다.

주민 1인당 지방채무도 전년보다 1만 3000원 줄어든 65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 대비 채무액을 나타내는 채무비율은 21.5%로, 6대 광역시 가운데 대전과 울산 다음으로 낮았다.

시가 일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방채상환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조기상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채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614억원으로 전년보다 61억 원 감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예산·재정정보·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부동산 전문가 신재민대표의 특별세미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성공투자처 공개!

부동산 가치분석 전문가 신재민 대표의 방송안내

매일경제 TV "생방송 부동산" 출연중 - 생방송 :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FUN TV "부동산 매거진" 출연중 - 재방송 : 매주 목요일 오전 1시

- 생방송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30분

OBS "행복부동산연구소"에 출연해 온 신재민 전문가가 앞으로는 매일경제TV "생방송부동산"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FUN TV "부동산매거진"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찾아뵙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2017년 토지보상 19조! 토지투자 기회는 지금이다!

전국 아파트시장의 전망 황금알을 낳는 토지투자 트렌드 분석 수익형/차익형 유리한 투자방법은? 대한민국 개발지 분석비법 공개! 전문가의 1:1 무료 자산상담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9월 4일(월요일) / 오후 3시~5시 ■ 주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광주시 지하철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5번출구 직진 220m도보)
서울 여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9월 7일(목요일) / 오후 3시~5시 ■ 주소 : 여의도동 25-11 유수출딩스(한진해운)빌딩 5층/1층 우리은행건물 (여의도역 4번 출구에서 100m 직진 후 좌회전 100m 우측)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한국토지자산개발

세미나 문의 : 02)786-3888

NAVER 경제채널 매일경제TV 를 검색해주세요